

# 한전, 누적 역마진 해소...4분기 흑자 기대

### 지난 10월 누적 전력 판매·구입단가 차이 1kWh 당 0.8원 흑자 전환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세 영향...SMP 감소에 재정부담도 덜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력 판매단가보다 구입단가가 비싸 발생했던 '역마진' 구조를 해소했다.

한전은 지난 5월부터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를 넘어지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손해를 털고 지난 10월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약 45.5조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역마진 구조가 해소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전이 발표한 '10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전의 전력 판매·구입단가의 차이는 1kWh(킬로와트시)당 16.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까지 전력 판매·구입단가 차이는 음수

(-)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였지만 지난 5월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6.4원 높아지면서 적자 해소의 물꼬를 텄다.

다만 전력 판매·구입단가의 차이는 누적 기준으로 올해 1-9월까지 1kWh당 -0.35원으로 이미 누적된 역마진 상태를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6개월 만인 지난 10월, 누적기준 전력 판매·구입단가 차이가 1kWh 당 0.8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누적기준 전력 판매·구입단가 차이가 역마진을 기록한 이래 2년 만이다.

이때문에 한전의 올 4분기 영업이익 흑자에 대

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이래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한전은 올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한 바 있는데, 4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할 경우, 한전 재무구조 개선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력 판매단가보다 구입단가가 비싸진 건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세의 영향이 컸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국제 정세 악화 및 코로나 창궐에 이어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크게 뛰는 등 지속적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의 흐름 가운데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지난 3분기 흑자 전환, 역마진 해소 등을 통해 재정상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지난달 전력 시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감소도 한전 재무상태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SMP

는 지난해 10월 252원, 올해 2월에는 254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5월 144원, 8월 147원에 이어 10월에는 137원을 기록했다.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를 가리키는 SMP가 감소함에 따라 한전의 재정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역마진 구조 해소가 곧바로 한전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력의 판매단가와 구입단가의 차이를 가리키는 마진과 별개로 전기요금 산정 시 반영되는 총괄 원가는 전력 구입단가, 판매단가, 전기 생산·공급 등에 들어가는 모든 영업 비용, 법인세 비용, 송배전망 보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 측은 판매·구입단가 차이가 1kWh당 22원 이상으로 올라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사학연금 VC 운용사 선정 DSC·IMM인베·아주IB 3곳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9일 벤처캐피탈(VC)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로 DSC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 국내 VC 출자규모는 약 450억 원으로 위탁운용사 3곳에 각 15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지난 10월 위탁운용사 제안서를 접수 받아 1차 정량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체투자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위탁운용사 3곳을 최종 확정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사학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지속적인 자금운용수익률 제고와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 VC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로 다올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에이티인베스트먼트 4곳을 선정해 총 1000억원을 투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임직원들이 '한전KPS VISION2030 Rolling'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경영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한 다짐대회를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 한전KPS '경영혁신&신성장동력 창출' 비전 달성 다짐

### 비전 추진 방향·경영목표 재정립

한전KPS는 지난 14-15일 본사에서 '비전2030 달성 및 경영혁신 다짐대회'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2023 전사 경영현안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KPS 김흥연 사장을 포함해 전국 모든 사업소장이 참석했다.

한전 KPS는 다짐대회에서 '한전KPS VISION

2030 Rolling'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전성·중요성·정합성 진단을 통한 새로운 경영목표를 재정립했다.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진단 및 재편 ▲정부 혁신정책 이행 및 자체 강도 높은 수익성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ESG 핵심이슈·과제 도출을 설정했다.

이어 4대 혁신 방향으로 ▲비즈니스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업무 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 조

직문화 혁신 ▲열린 혁신 및 협업 설정을 제시하고, 14개 혁신전략 및 3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는 등 이행 목표를 세웠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또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방침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전 최우선 경영 및 고품질 책임경영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노사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경영을 제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aT, 송실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 농식품 분야 미래인재 육성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5일 송실대학교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농수산물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등 ESG 가치 확산 ▲농수산물 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협력 ▲안전한 공공 급식으로 학생건강 제고와 급식산업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송실대의 교훈인 진리와 봉

사의 정신을 담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실천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적극 힘써달라"고 말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DN,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자부 장관 표창

### 2년 연속 최우수등급 받아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경제인연합회 FKI타워에서 개최된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확산에 기여하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한전KDN은 'KDN Eco-Life' 캠페인을 통해 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화용컵 사용,

플로깅 캠페인, 폐전산제품 친환경처리 등 생활 속 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또 협력기업 ESG경영 도입지원, 일자리 창출 PR챌린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동반성장 가치를 제고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현재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업경영의 필수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과제 발굴 및 고도화로 지속가능경영 가치 실천을 선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켄텍, 미래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성과 포럼

### 성과와 수업 실천 사례집 배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지난 13일 '2023년 미래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성과 포럼'을 개최하고, '성과와 수업 실천 사례집(e-book)'을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포럼은 켄텍이 지난 7월부터 추진했던 '미래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을 통해 대학의 우수 교육모델을 지역 내 초·중·고 교육으로 확산시킨 성과를 공유했다.

포럼은 조정자 전라남도장유합교육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경 켄텍 교수의 성과 보고, 백진영 교사(능주교)와 강대혁 교사(순천미래학교)의 켄텍형 미래교육 수업 모델 적용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황대식 순천제일고 교장, 조숙경 교수, 김희웅 화순고 교사가 참여한 지정 토론 세션에서 미

래교육에서 학교의 변화, 대학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협력,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배포한 '2023 미래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성과 및 수업실천 사례집'에는 켄텍의 학생 참여 수업 설계(GAPA), 탐구기반 프로젝트 학습(IBL), 미네르바 교육, 탐구 토론 수업모델, 인공지능 학습 수업모델 등의 적용 사례와 교수학습지도안 자료와 예시, 교사연수 프로그램, 수업 멘토링 과정과 결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의준 켄텍 총장은 사례집을 통해 "교육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혁신을 요구하는 과제들은 앞으로 수없이 생겨날 것이다"며 "우리는 협력적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야 하며, 더 넓은 범위의 교육 공동체 안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